

이집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8. 6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9
IV. 국제신인도	11
V. 종합의견	13

I. 일반개황

면적	1,001천 km ²	G D P	1,949억 달러 (2017년)
인구	94.8백만 명 (2017년)	1 인 당 GDP	2,056달러 (2017년)
정치체제	대통령 중심제	통화단위	Egyptian Pound (E£)
대외정책	친서방, 친아랍	환율(달러당)	17.84 (2017년 평균)

-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와 94.8백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대국이며, 전체 인구의 90%는 수니파 이슬람교, 그 외 10%는 기독교(대부분 콥트교)를 믿음.
- 유럽, 중동,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정책 등을 통해 역내 정치, 경제,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음.
-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2011년 1월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무르시 후보가 당선되었으나, 이슬람주의 정책 강요와 권력 기반 확대에만 급급하다 쿠데타로 집권 1년 만에 축출됨.
- 이후 과도정부를 거쳐 2014년 5월 대선에서 쿠데타를 주도했던 엘시시 前국방장관의 당선에 따라 정식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불안이 완화되었으며, 2018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엘시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.
- IMF는 2016년 11월 이집트의 거시경제 안정성 및 성장 제고를 위해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(EFF : Extended Fund Facility)을 승인하였으며, 엘시시 정부는 VAT 도입, 변동환율제 실시 및 보조금 감축 등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실시해 오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 표 1 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
경제성장률	3.3	2.9	4.4	4.3	4.2
소비자물가상승률	6.9	10.1	11.0	10.2	23.5
재정수지 / GDP	-12.9	-11.3	-10.9	-10.7	-11.4

자료: IMF

□ 엘시시 정부의 안정적 집권에 따른 경제회복 추세 지속

○ 2011년 반정부 시위 및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이후, 2013년 쿠데타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따른 관광수입 급감*,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2010년 5.1%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이 2012~14년 2%대로 크게 하락하였음.

* 관광수입(억 달러) : 125('10) → 87('11) → 99('12) → 60('13) → 72('14)

○ 그러나 2014년 엘시시(el-Sisi)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 불안이 완화되었으며, 해외원조*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5~17년 경제성장률은 4%대로 회복되었음.

* 2014년 상반기 UAE로부터 30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포함하여 GCC 국가들로부터 총 120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받음. 아울러 수에즈 인근에 국제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UAE로부터 총 400억 달러를 투자 받기로 하는 등 해외 원조 수혜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.

○ 2018년에는 변동환율제 도입(2016년 11월 도입)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될 전망이나, 이집트파운드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승 및 新행정수도(카이로 동부)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4%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보조금 삭감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 지속

- 2016년 11월 IMF의 120억 달러 구제금융 승인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여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* 하였으며,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.

* 환율 추이(이집트 파운드/달러) : 7.71('15) → 10.07('16) → 17.84('17)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집트파운드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 및 연료보조금 축소의 영향으로 2017년 23.5%까지 상승하였으며, 2018년에도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른 환율 상승 지속, 부가가치세 도입 및 보조금 축소로 21.3%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.

□ 부가가치세 도입, 보조금 개혁 등 재정건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,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지속

- 이집트는 IMF 구제금융 수혜의 조건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보조금 개혁과 함께 기존의 일반 판매세(10%)를 대신하여 2016년 9월 부가가치세(13%)를 도입*하였음. 이처럼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보건 및 교육 관련 재정지출 확대에 인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7년 - 11.4%를 기록하였으나, 2018년에는 동 비율이 2017년 대비 다소 개선된 - 10.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* 2017년 7월부터는 14%의 부가가치세를 적용

- 이집트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광범위한 연료보조금 개혁을 실시(천연가스 100% 인상 및 전기요금 5년 간 단계적 인상 등)하였음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GCC 국가, 미국 등으로부터의 원조에 높은 의존도

- 걸프협력회의(GCC)* 국가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는 외국인투자 유입, 재정 수지 적자 충당,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이어져 이집트 경제에 매우 중요한

역할을 하고 있음.

- * 1981년에 결성된 걸프 지역 아랍 산유국의 협력체로, 사우디아라비아, 카타르, 쿠웨이트, 바레인, 오만, UAE 6개국으로 구성됨.
- 이집트는 이슬람주의자인 무르시 대통령이 쿠데타로 축출된 후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, UAE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았음.
- 한편, 미국은 이집트에 매년 13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하고 2012년 10억 달러 규모의 외채탕감에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.
- 다만, 최근 저유가 기조로 GCC 국가들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향후 대 이집트 원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, 미국은 2013년 엘시시 대통령의 쿠데타 이후 군사원조를 중단한 전례가 있음.

□ 높은 관광업 비중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

- 이집트의 경제구조는 2017년 기준 서비스업 55.7%, 제조업 33.1% 및 농업 11.9%로 이루어져 있으며, 특히 관광업의 경우 2017년 GDP의 11.0%*에 달하는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
- * WTTC(World Travel & Tourism Council)의 ‘Economic Impact 2018 Egypt’ 기준
-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국내 및 중동의 정치·사회 상황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.
- 2011년 ‘아랍의 봄’ 이후 지속된 테러와 정정불안으로 2010년 125억 달러에 달하던 관광수입은 2016년 26억 달러까지 급감 한 후 2017년 78억 달러로 회복 중임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MENA 지역 최대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 보유

- 이집트의 인구는 2017년 기준 MENA(중동·북아프리카) 지역에서 가장 많은 9,480만명*이며, 이 중 50% 이상이 25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풍부한 노동력과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.
- * 이란 8,142만 명, 알제리 4,154만 명, 사우디아라비아 3,238만 명

-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이집트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총 137개국 중 134위로 매우 낮은편이며, 근로자 해고가 어렵고,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종업원의 10%를 넘을 수 없는 등 노동법규가 까다로운 편임.

□ 유럽, 아시아,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무역 허브

- 이집트는 거대 시장인 EU와 오일머니가 풍부한 아랍권,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무역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가짐.
- 아울러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를 관할하고 있어 양 대륙간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, 2015년 8월 일방통행인 약 35km 구간을 쌍방향 동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2수에즈 운하를 개통하였고 약 37km의 기존 구간은 확장하였음.
- 또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수에즈 운하 주변에 다수의 경제 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를 운영 중임.

□ 지중해 최대 규모의 Zohr 천연가스전 발견으로 성장 발판 마련

- 이집트는 2015년 지중해 해안에서 190km 떨어진 Zohr 광구에서 추정매장량 약 8,500억 m³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발견하였으며, 이는 현재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된 가스전 중 최대 규모임.
- Zohr 가스전이 2018년 2분기부터 생산이 시작되면 에너지 수입비용을 줄이면서 무역수지 개선과 외환보유고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이집트 국영 가스회사 EGAS의 Mohamed Al-Masry 사장은 지난 2월 개최된 ‘EGYPT PETROLEUM SHOW 2017’에서 “2018년이 이집트가 가스를 수입하는 마지막 해가 될 것” 이라고 말하며 2020년에는 가스 수출을 시작할 계획임을 밝힘.

□ Egypt SDS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·교통산업 발전 가능성

- 이집트 정부는 Egypt SDS 2030의 10대 축의 하나인 도시개발을 위해 공공 서비스(대중교통 등) 확충, 도시 빈민촌 개발 등을 통해 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 균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음.

- 2015년 이후 지속되는 인프라 투자 수요는 건설 부문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, 관광 부문에 대한 투자로 상업용 건물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.
- 카이로 동부에 최대 7년간 총 450억 달러가 소요될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, 100억 달러가 소요될 Alexandria-Cairo-Luxor-Aswan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임.
- 사우디아라비아와 2016년 4월 240억 달러 규모의 차관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GCC 회원국들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인프라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.

다. 정책성과

□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

- IMF는 2016년 11월 이집트의 거시경제 안정성 및 성장 제고를 위해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(EFF : Extended Fund Facility)을 승인하였으며, 27.5억 달러를 즉시 집행함.
- IMF는 현재까지 60억 달러를 집행하였으며, 나머지 금액은 2019년까지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.
- 엘시시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부분 IMF와 구제금융 도입시 합의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으며, 2016년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한 이래 VAT 도입, 변동환율제 실시 및 보조금 감축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해 오고 있음.
-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목표는 대외 불균형 해소, 경쟁력 회복, 재정적자 및 공공 부채 축소, 성장 촉진,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보호임.
- 향후에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, 3~5년 간 유류보조금 완전삭감 등의 개혁조치가 예정되어있음.

□ 양도소득세 유예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

- 2016년 11월 이집트 최고투자위원회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

도입 3년 유예, 나일 강 인접 상부 이집트(Upper Egypt) 지역 농업 및 제조업 투자자에 대한 5년간 소득세 경감 등이 포함된 투자 진흥조치를 승인하였음.

- UNCTAD 2017 자료에 따르면, 엘시시 대통령 당선 이후 각종 경제개혁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FDI 유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.

* FDI 유입액(억 달러) : 42.5('13) → 46.1('14) → 69.3('15) → 81.1('16)

3. 대외거래

< 표 2 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
경 상 수 지	-6,390	-2,356	-12,143	-14,999	-12,101
경상수지 / GDP	-2.2	-0.9	-3.7	-6.0	-6.5
상 품 수 지	-29,484	-39,182	-38,551	-37,431	-33,248
수 출	26,534	25,269	19,031	20,021	25,951
수 입	56,018	64,451	57,582	57,452	59,199
외 환 보 유 액	13,608	13,092	16,704	13,888	27,595
총 외 채 잔 액	46,493	48,989	56,146	67,214	90,414
총외채잔액 / GDP	17.1	16.3	14.6	20.2	35.3
D S R	4.9	5.9	5.3	7.6	7.7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는 관광수입 회복 등으로 개선될 전망

- 2013년 쿠데타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 이후 관광수입, 수에즈 운하 통과료 수입 등 각종 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.
-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이집트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액 증가보다 수출경쟁력 상승효과가 더 큼에 따라 전년 대비 약 44억 달러 개선된 -15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, 이집트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명목 GDP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는 전년(-6.0%)과 비슷한 -6.5%를 기록함.

* 경상수지(억 달러) : -27('14) → -121('15) → -198('16) → -154('17)

- 2018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이집트파운드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승효과와 더불어 관광수입 회복의 영향으로 전년(-6.5%) 대비 개선된 -4.4%를 기록할 전망이다.

* 관광수입(억 달러) : 60('13) → 72('14) → 61('15) → 26('16) → 78('17) → 86('18)

□ 부족한 외환보유액은 IMF, GCC 국가 등의 지원 및 국채 발행 등으로 점차 증가할 전망

- 사우디아라비아, UAE, 쿠웨이트 등 주변 GCC 국가들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관광 부문의 침체 및 수출 감소로 인해 2016년 외환보유액은 2015년(167억 달러) 대비 감소한 139억 달러를 기록하여 월평균 수입액 2.6개월분에 불과하였음.

- 부족한 외환보유액 개선을 위해 이집트정부는 2017년 1월 중순 카이로에서 투자자 미팅을 시작한 후 2017년 1월 40억 달러의 국채 발행에 성공*하였으며, IMF, GCC 국가 및 중국 등의 지원으로 인해 2017년 외환보유액은 276억 달러(월평균 수입액 대비 5.5개월)를 기록함.

* 당초 목표액의 2배 규모로 발행에 성공한 금번 채권은 Fitch가 B등급을 부여하였으며, 5년 만기 17.5억 달러(6.125%), 10년 만기 10억 달러(7.5%), 30년 만기 12.5억 달러(8.5%)로 구성됨.

- 한편, 2018년 4월 20억 유로(약 24억 달러 상당) 채권 발행* 등에 힘입어 2018년 외환보유액은 327억 달러(월평균 수입액 6.6개월분)로 증가할 전망이다.

* 총 발행액은 75억 유로이며, 절반은 8.5년 만기(4.75%), 절반은 12년 만기(5.625%)로 구성됨.

□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이나 D.S.R이 7.7%로 양호한 수준

-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IMF 구제금융 도입 등의 영향으로 전년(20.2%) 대비 35.3%로 증가하였으나, 외채증가분 대부분이 양허성 차관(이자율 1~2% 수준)으로 조달될 예정으로 외채 원리금 상환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며, D.S.R은 2017년 7.7%로 양호한 수준을 보임.

- 총외채잔액은 2018년에도 국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및 원조 등

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39.1%를 기록할 전망이다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엘시시 대통령, 연임 성공으로 안정적 정권 유지

- 30년 간 장기 집권한 무바라크 대통령이 2011년 1월 반정부 시위로 하야하면서 독재정권이 종식되었고, 2012년 6월 무르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엘시시 국방장관이 주도한 쿠데타로 1년 만에 정부가 전복됨.
- 이후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엘시시 국방장관의 당선에 따라 정식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불안이 완화되었으며, 2018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.
 - 한편, 엘시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후보 탄압*과 언론규제 강화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하였음.
 - * 대선 후보로 평가받던 사미 아난 전 합참의장은 문서 위조와 육군 규정 위반 혐의로 군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, 유력한 경쟁자였던 아흐메드 샤피크 전 총리는 행방불명 소동 끝에 대선 출마를 포기함.

□ 무슬림형제단의 위협이 상존하나 엘시시 정부의 통제력 유지

-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조직인 무슬림형제단과 그 추종자의 상당수가 감옥에 있으며, 최근의 치안 강화를 빌미로 한 억압적 통치는 무슬림형제단의 추종자들을 극단주의자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음.
- 그러나 대안세력 부재에 따라 엘시시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대한 불만은 미미하며, 야당도 정권을 교체할 동력이 없어 당분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임.

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□ 권위주의와 고강도 경제개혁으로 인한 대중의 반발 가능성

- 정부 기관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, 엘시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IMF

요구사항* 이행에 따른 고강도 긴축정책 실시에 따라 2017년 기준 23%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12%에 달하는 실업률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.

* 이집트 정부는 IMF 요구사항인 VAT 및 변동환율제 도입, 보조금 축소 등 각종 경제체질 개선을 시행하고 있음.

- 누적된 불만으로 2016년 11월 반정부 단체(Ghalaba)가 현 정부 퇴진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고, 엘시시 정부는 대중매체를 통해 엄격한 치안관리와 경제개혁의 시급성을 홍보하고 있으며, 개혁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어 당장 큰 소요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.

3. 국제관계

□ 친서방 정책과 함께 GCC 국가로부터 경제적 이익 추구

- 엘시시 정부는 미국 및 EU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,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, UAE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음.
 -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2016년 4월 240억 달러의 차관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이집트 중앙은행이 2016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0억 달러의 예금 유치를 발표하는 등 사우디의 지원은 이집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.
 - 사우디아라비아, UAE 등 GCC 회원국들은 수니파 왕정 국가로, 이슬람공화정을 추구하는 무슬림형제단과 그 추종세력이 자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엘시시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.
- 그러나 최근 저유가로 인한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타격, 시리아 분쟁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* 및 최근 이집트 정부의 사우디아라비아 앞 홍해 2개 섬 양도문제**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
 - * 이집트는 시리아 사태 관련 아사드 대통령을 옹호하는 러시아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반면,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 또는 축출을 고집하고 있음.
 - ** 이집트는 2016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앞 홍해의 2개 섬(Tiran, Senafir) 양도협정을

체결하였으나 국내의 반대와 법적인 문제로 폐지될 위험에 있으며,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유대(지원)에 균열이 예상됨.

□ 중국 등 비전통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외연 확대 추구

-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 우방국으로부터의 원조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GCC 국가를 넘어 외연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, 최근 중국과 27억 달러 상당의 차관도입 계약을 맺는 등 비전통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.
- 한편,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건설에 따라 청나일 강(나일 강 상류)의 이집트 유입 제한으로 심각한 수자원 부족이 예상되며, 댐 건설에 대한 이집트의 강력한 반발로 에티오피아와의 관계 악화 및 에티오피아의 동맹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긴장이 잠재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파리 클럽과 미국 등으로부터 채무재조정 경험 보유

- 이집트는 파리 클럽과 1987년, 1991년에 각각 71억 달러, 212억 달러 규모의 외채 리스케줄링에 합의한 바 있으며, 미국은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2012년 이집트의 대 미국 채무 중 10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하였음.
- 한편, IMF는 2016년 11월 총 12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승인하고 현재까지 60억 달러를 집행하였음.

□ ECA에 대한 연체금액 감소

- 2017년 9월 말 기준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총 197억 달러(단기 12억 달러, 중장기 185억 달러)로 전년(총 197억 달러)과 비슷한 수준이며, 채권국가 별로는 독일(80억 달러), 프랑스(58억 달러), 이탈리아(21억 달러) 등임.
- 이집트 정부의 상환노력으로 연체금액은 상당히 감소*하였음
- * 2016년 9월 말 기준 연체금액 5.6억 달러 및 회수불능금액 4.3억 달러
→ 2017년 9월 말 기준 연체금액 2.3억 달러 및 회수불능금액 2.0억 달러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

< 표 3 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종전 평가등급
당행	D1 (2018.06)	D1 (2017.03)
OECD	6등급 (2018.01)	6등급 (2017.01)
Moody's	B3 (2018.02)	B3 (2017.08)
Fitch	B (2018.01)	B (2017.06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95. 4. 13 수교 (북한과는 1963. 8. 24)

□ 주요협정: 항공협정('79), 이중과세방지협정('92), 무역협정('96),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('96), 사증면제협정('96), 원자력평화협정('01), 장관급공동위원회 설립협정('12), 문화원 설립 및 운영협정('14),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('16)

□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7년 말 기준 48건, 348,336천달러(누계 기준)

□ 교역규모

< 표 4 > 한·이집트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분	2014	2015	2016	2017	주요품목
수 출	2,364	2,179	1,770	1,325	자동차,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
수 입	532	218	62	90	천연가스, 석유제품, 천연농산물
교역규모	2,896	2,397	1,832	1,415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 의견

- 이집트는 반정부 시위 및 군부 쿠데타 등 정권 붕괴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2012~14년 경제성장률이 2%대로 하락하였으나, 엘시시 대통령의 안정적 집권이 이어지면서 2015~ 17년 경제성장률은 4% 대로 회복되었음.
- 2013년 쿠데타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 이후 관광수입, 수에즈 운하 통과료 수입 등 각종 수입원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, 2018년에는 이집트파운드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승효과와 더불어 관광수입 회복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(-6.5%) 대비 개선된 -4.4%를 기록할 전망이다.
- IMF 구제금융 수혜의 조건으로 보조금 개혁, 부가가치세 도입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, 보건 및 교육 관련 재정지출 확대에 인하여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-11.4%의 적자를 기록함.
- 걸프협력회의(GCC) 국가 및 미국 등의 원조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,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 국내·중동 정치 상황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.
- 2018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엘시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, 경제개혁에 따른 고통 가중으로 일부 반정부 단체가 존재하나 영향력이 미미하여 당분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임.
- 부족한 외환보유액 개선을 위한 IMF, GCC국가 등의 지원 및 국채 발행 등으로 외채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 외채증가분 대부분이 양허성 차관으로 조달될 예정으로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며, 2017년 D.S.R은 7.7%로 양호한 수준을 보임.

조사역 김희원(☎6255-5720)

E-mail : kheewon@koreaexim.go.kr